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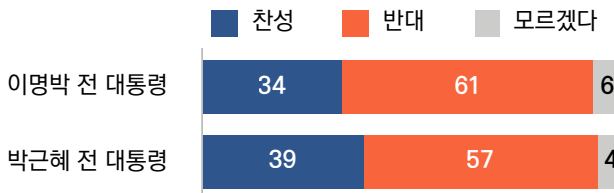
1. 전직 대통령 사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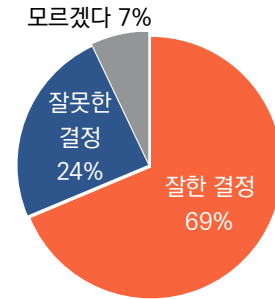
우리 국민, 전직 대통령 특별 사면 ‘반대’가 ‘찬성’보다 훨씬 높아!

- KBS가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물었는데, ‘이명박 전 대통령’ 특별 사면에는 ‘사면 반대’ 61%, ‘사면 찬성’ 34%, ‘박근혜 전 대통령’은 ‘사면 반대’ 57%, ‘사면 찬성’ 39%로 두 전 대통령 모두 사면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았다.
- 반면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는 ‘잘한 결정’ 68%, ‘잘못한 결정’ 24%로 전직 대통령 사면 의견과 달리 긍정 평가가 높았다.

[그림] 수감 중인 전직 두 대통령 사면 찬반 의견 (일반 국민) (%)



[그림]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평가 (일반 국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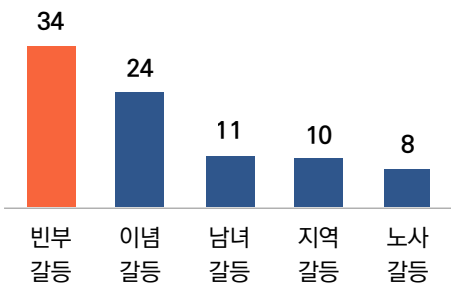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KBS/한국리서치, '8.15 특집 여론 조사', 2021.08.16.(전국,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, 1,000명, 전화면접조사, 2021.08.12.-14)

●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갈등 1위, ‘빈부 갈등’ 34%

-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은 무엇일까? ‘빈부 갈등’ 34%, ‘이념 갈등’ 24%, ‘남녀 갈등’ 11% 등의 순으로,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이 빈부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연령별로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 응답을 살펴보면, ‘20대’는 남녀 갈등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, ‘30-50대’는 빈부 갈등, ‘60대 이상’에서는 이념 갈등(17%) 꼽았다. 특히 20-30대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갈등 요인인 ‘이념/지역 갈등’보다 ‘빈부와 남녀 갈등’이 높은 순위에 있는 반면, 60대 이상에서는 이념 갈등이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.

[그림]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 (일반 국민) (%)



[표] 연령별 가장 심각한 갈등 요인 1-3위

연령	1위	2위	3위
18-29세	남녀 갈등 38%	빈부 갈등 30%	세대 갈등 9%
30대	빈부 갈등 34%	남녀 갈등 23%	이념 갈등 20%
40대	빈부 갈등 49%	이념 갈등 21%	노사 갈등 10%
50대	빈부 갈등 37%	이념 갈등 36%	지역 갈등 10%
60대	이념 갈등 32%	빈부 갈등 30%	지역 갈등 17%
70세 이상	이념 갈등 23%	빈부 갈등 22%	모름 21%

*자료 출처 : KBS/한국리서치, '8.15 특집 여론 조사', 2021.08.16.(전국,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, 1,000명, 전화면접조사, 2021.08.12.-14)